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경영능력을 배가하자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정보가 돈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또한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농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즉 어떻게 하면 사료비를 절감하고 언제쯤 돼지 가격이 오를 것이며, 어디에 팔면 높은 값에 팔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르고 경영하는 것보다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활용하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정보를 수집해 놓고 파는 기업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 또는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농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 양돈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보제공기관이 양돈협회이며 여기서 발간하는 “월간양돈”도 중요한 정보제공원이다. “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르고 경영하는 것보다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활용하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조광호 교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간양돈”에 소개된 국내외 양돈기술이나 관련산업정보 및 시세정보는 우리 양돈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월간양돈”에 나온 돼지가격 등 시세는 이미 한달 전의 것이라 참고만 될 뿐 크게 이용하지 못한다. 어제, 오늘의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보다 유용하나, 잡지의 특성상 다소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신문은 잡지보다 비교적 소식을 빨리 전하며 가격정보도 비교적 빠르나, 이 역시 며칠이 지난 정보 또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보다 공급자가 공급하는 정보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PC통신은 오늘의 소식이 바로 전달되며, 내가 필요한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정보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주변에 가까운 분이 상(喪)을 당하여 장례(葬禮)를 주관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필자는 절차도 잘 모르고 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인터넷 생각이 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자료가 많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이용한 농가와, 이용하지 않은 농가는 경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자명하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면 앞에서 언급한 가격이나 기술정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가격 등 유통정보 뿐 아니라 기상, 생산, 소비, 수출·수입, 생산비 등 농가경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도 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연구논문이나 문헌, 농업용 컴퓨터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제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내외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싸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 쉽게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고, 청와대나 농림부 등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 환율이나 우편번호, 전화번호도 알 수 있다. 통신을 통해 얻은 정보는 직접 이용할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서 이용할 경우도 있다.

양돈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인터넷 양돈협회 홈페이지(www.ksa-pork.or.kr)와 양돈연구(cowboys.gsnu.ac.kr/swine) 등이 있고, 축산관련 기관을 찾고 싶으면 cowboys.gsnu.ac.kr/link/links.html을 찾아보면 된다. 축산관련 기관으로 대표적인 사이트는 축산기술연구소(agis.nhri/animal.html)와 축협중앙회(www.nlcf.co.kr)가 있고, 농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으면 농림부(www.maf.go.kr)와 농촌진흥청(www.rda.go.kr), 그리고 농림수산 정보센터(www.affi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이들 정보는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정보센터는 PC통신을 이용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또 관련 사이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컴퓨터에 관심 있는 농민에게 전산교육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할 것인가?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나서 자기 컴퓨터로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하니 PC종류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농업정보119서비스」(cowboys.gsnu.ac.kr/helper)로 도움을 청하면 서비스 요원이 농가까지 찾아가서 연결해 주며, 농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교육도 시켜줄 뿐 아니라, 고장도 수리해 준다(농림부 지원으로 경상대(전화:0591-7575-119)와 강원대(전화:0361-2445-119)가 서비스 중이며, 3월 하순경부터 전남대(전화:062-5302-119)와 충남대가 서비스할 계획이고 차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교통비만 농민이 지불함).

그렇다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는 경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먼저 선진 기술을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을 고급화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료, 약품, 농기계 등 생산요소를 값싸게 구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산물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와 시장을 선택할 수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상,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가격을 예측하여 생산 판매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연적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부정책의 변화나 정책자금의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경영상 제기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으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또 자금의 이체, 물품구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양돈인들도 하루빨리 PC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야 남에게 뒤지지 않고 살아남는다. 또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배우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양돈**